

# 올 가을 맑고 따듯 “나들이 가기 좋아요”

### 평년보다 기온 약간 높고 강수량은 비슷... 온난화 경향 보여 11월 초 첫서리·태풍 1개 발생 예상... 일시적 기온 저하도

올가을 광주·전남의 기온은 예년보다 약간 높겠지만 맑은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019 가을철 날씨 전망”을 통해 본격적인 가을철인 9~11월 전반적으로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11월로 갈수록 약간 많아질 가능성이 높겠다”고 25일 밝혔다.

기상청은 올해 광주·전남의 가을철은 초반에는 상층에서 내려오는 한기의 영향을 가끔 받겠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평년보다 약한 시베리아고기압과 알류산저기압으로 인해 북풍이 약할 것으로 예상돼,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보했다.

9월 초반까지는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 자리에 들어 구름이 끼는 날이 많았다. 그러나 중순부터는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은 가을하늘이 되겠다.

중순 중에는 일시적으로 상층 한기 때문에 기온이 내려갈 때가 있겠지만 기압계의 동서흐름이 원활해 큰 폭으로 기온이 떨어지는 양상은 없을 것이다.

9월 평균 기온은 평년(21.4~22.2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겠으며, 월 강수량은 평년(61.3~215.1mm)과 비슷하겠다.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으로 10월에도 맑은 날이 이어지겠지만, 일시적으로 상층 한기의 영향을 받겠다.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도 있겠다.

10월 평균 기온은 평년(15.7~16.5도)과 비슷하거나 높겠다. 월 강수량은 평년(31.1~54.2mm)과 비슷하거나 많겠다.

11월에도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은 가을하늘이 이어지겠지만, 가끔 남쪽을 지나가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겠다.

본격적인 겨울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날도 있을 것이라고 기상청은 예상했다.

11월 평균기온은 평년(9.1~10.1도)보다 높겠고, 월 강수량은 평년(24.9~54.2mm)과 비슷하거나 더 내리겠다.

최근 10년(2009~2018년) 평균 광주에는 11월 상순에 첫서리(평균 11월 7일)가 나타났고, 중순에는 첫얼음(11월 12일)이 얼었으며, 하순에는 첫눈(11월 29일)이 내렸다. 유동적이겠지만 올해도 비슷한 시

기에 첫서리와 첫눈이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광주·전남 최근 10년 가을철 평균 기온은 16.2도로 평년(1981~2010년, 15.8도)보다 0.4도 높았다. 최근 10년 가을철 강수량도 290.4mm로 평년(182.9~295.4mm)과 비슷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973년 관측 이래 광주·전남 가을철 월별 평균기온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온난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11월이 지난 46년 간 1.0도 오름과 다른 월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승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편 올 가을 9~12개의 태풍이 발생해 이중 1개(평균 0.7개) 내외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북태평양고기압이 점차 수축하면서 일본 남부해상을 지나오는 태풍의 사례가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무	06:00	달맞이	01:01
해질	19:08	달뜨기	15:46

**우중충한 하늘**  
구름 많다가 밤에 흐려져 비 내리는 곳 있겠다.

광주	흐리고한때비	21/31	보성	흐리고한때비	18/28
목포	흐리고한때비	21/29	순천	흐리고한때비	21/30
여수	흐리고한때비	22/27	영광	흐리고한때비	19/31
나주	흐리고한때비	19/30	진도	흐리고한때비	21/28
구례	흐리고한때비	19/30	군산	구름많음	20/30
강진	흐리고한때비	20/29	남원	구름많음	19/30
해남	흐리고한때비	20/28	흑산도	흐리고한때비	20/26
장성	흐리고한때비	19/30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동~동	0.5	동~남동	0.5
남해 앞바다	북동~동	1.0~2.0	동~남동	1.0~1.5
남해 서부 앞바다(동)	북동~동	0.5~1.0	북동~동	0.5~1.0
남해 서부 앞바다(서)	북동~동	1.0~2.0	동~남동	1.0~2.0
남해 서부 앞바다(남서)	북동~동	1.0~2.5	동~남동	1.0~2.5

◇ 생활지수

경고	☀
식중독	☀
매우 높음	☀
자외선	☀
좋음	☀
미세먼지	☀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3:24	09:32
	15:23	22:47
여수	11:11	04:59
	--:--	18:10

◇ 주간 날씨

27(화)	28(수)	29(목)	30(금)	31(토)	9/1(일)	2(월)
☁	☁	☁	☁	☁	☁	☁
23/28	22/28	22/29	21/30	21/29	21/29	22/29

## 새학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정부, 한달간 초·중·고 주변 점검

정부가 새 학기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초등학교 주변 점검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6일부터 내달 27일까지 5주간 관계부처와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환경에 대한 안전점검과 단속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에는 행안부·교육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경찰청 등 5개 중앙부처와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 모두 724개 기관이 참여해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 및 주변 보호구역 안전실태를 점검한다.

점검은 교통안전·유해환경·식품안전·불법광고물·제품안전 등 5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이나 불법 주·정차, 어린이 통학버스 내 안전띠 착용과 하차 확인 장치 작동 여부,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운영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또 유해환경 정화와 관련해 학교 주변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행위, 신·반종업소의 불법 영업행위, 성매매 및 퇴폐행위와 불건전 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학교 내 급식소와 매점, 주변 분식점 등의 위생관리 상태를 비롯해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 공급이나 불량식품 제조·판매 실태도 살핀다.

이밖에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 정비,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이동식 광고물 수거,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 단속도 진행한다.

/박기용 기자 pbxer@



아프리카 전통공연, 오월 희생자 넋 기리다  
광주 동구 5·18민중광장에서 24일 열린 ‘2019 광주 프린지페스티벌’에 출연한 아프리카 타악그룹 ‘아나프’가 서아프리카 전통리듬과 북을 이용해 민중회를 위해 싸운 오월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공연을 펼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난폭·보복·음주운전 100일간 집중단속

### 2주간 홍보·계도 활동 후... ‘깜빡이 미점등’도 단속

경찰이 다음달부터 심각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난폭·보복운전을 집중 단속한다.

경찰청은 “내달 9일부터 100일간 난폭·보복·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집중단속에 앞서 26일부터 2주간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펼친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1~7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처리 건수는 각각 5255건, 304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

교하면 난폭운전은 51.0%, 보복운전은 16.2% 증가한 것이다. 경찰은 이에 따라 난폭·보복 운전을 집중단속하는 한편 교통사고나 보복운전을 유발하는 ‘깜빡이 미점등’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도 병행한다. 음주운전 단속·처벌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운장호법’이 시행되며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크게 줄었으나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경찰은 암행순찰차와 드론을 활용해 대형사고 위험이 큰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등에서도 집중 단속을 나서기로 했다. 고속도로순찰차·지방경찰청·경찰서가 월 1회 이상 합동단속을 펼치고, 30분 간격으로 단속 장소를 바꾸는 ‘스팟 이동식’ 음주단속도 벌인다. 경찰은 또 인터넷상에 과속·난폭운전 촬영 영상을 공유하거나 폭주행위를 공모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수집을 강화해 기획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위험 운전으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범 가능성이 큰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며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 남구, 민간 보조사업 비리 예방 29일 통합교육

광주시 남구는 “민간 보조사업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9일 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2019년 지방 보조금 관리 통합교육’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남구 보조금을 지원받아 각종 사업을 펼치고 있는 민간단체와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법인 업무 담당자·보조사업자 등 4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남구에서 민간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한 배움서비스 지원,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한부모 가족 복지 지원 등 총 281개에 달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남구는 최근 전국적으로 부정행위 방범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다 적발된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번 교육을 통해 보조금 신청부터 정산까지 보조금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남구는 또 부정행위 방범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경우 제재금을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부터 시행된다는 점 등도 이번 교육을 통해 적극 알리기로 했다. /김용희 기자 kimyh@

## 원전 해체계획서 작성시, 각 지자체 주민의견 직접 수렴

원자력발전소 해체계획서를 작성할 때 원전 인근 모든 지자체의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원전의 비상계획구역(반경 30km) 내 지자체 중 포함된 면적이 가장 넓은 지자체가 의견 수렴을 주관하도록 했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지난 23일 제107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원안위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대상 지역에 여러 지자체가 포함돼 있을 때 포함 면적이 가장 넓은 지자체가 의견수렴을 주관하도록 한 현행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의견 수렴 대상 지자체는 모두 직접 공청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령은 2016년 6월 영구정지된 고리 1호기 해체계획서 수립 때 처음 적용될 예정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기타 필요 서류

문의처: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청단지점 576-4150